

광주광역시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 활성화 방안¹⁾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신중년 세대의 증가 및 이른 퇴직, 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의 움직임, 기대수명의 상승 등은 일자리사업의 중요성을 높임
- 신중년은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 및 전문직 종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 일자리보다는 이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고 싶어 함(보건복지부, 2023)
- 그러나 현재의 신중년 및 노인 관련 일자리사업은 단순 노동의 방식이 대부분이며, 중장년층이 원하는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부족한 실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 따라서 본 연구는 신중년의 일자리에 주목. 은퇴 이후 생애전환기에 놓여 있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단순 일거리 위주의 일자리 형태가 아니라 신중년이 갖고 있는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여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활성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정의가 불명확하고 다른 일자리사업과 유사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을 재정의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은 어떠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정립되어야 하는지 제시
-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욕구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당사자 참여를 통해 모색함으로써 지역적 매력과 당사자성이 반영된 활성화 방안을 도출
-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이해관계자들도 고려하여 현재 일자리사업의 개선점을 찾아 정책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 방안 마련은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대응책. 이들의 경력과 전문성 활용을 통해 사회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를 통해 자기 만족과 성취감 획득으로 노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음

CONTENTS

01 1p

연구 필요성 및 목적

02 2p

신중년의 특징 및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

03 3p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 설문조사 결과

04 4p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 심층면접 결과

05 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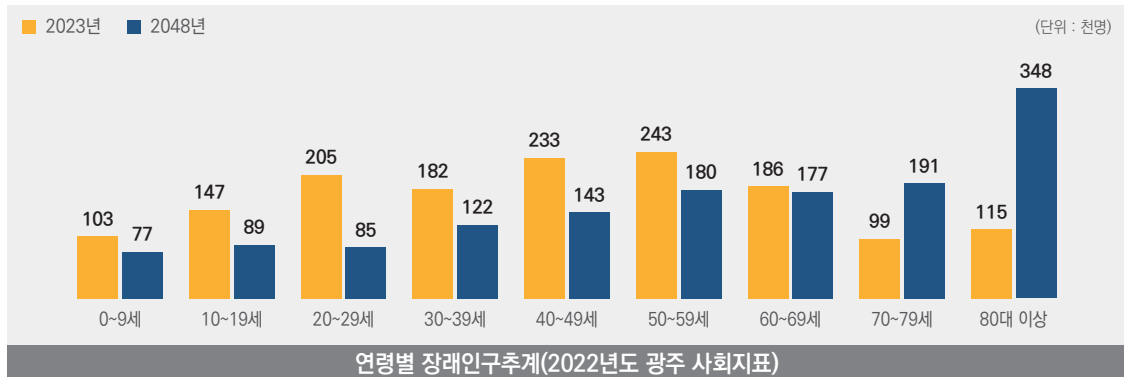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 활성화
방안

1) 본 내용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2023)에서 수행한 '광주광역시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구성하였음

2 신중년의 특징 및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

■ 신중년의 인구 특성

- 광주광역시 신중년 인구는 42만 여명(약 30.0%, 23년 말 기준)으로 지속적 증가세
- 광주광역시 2025년 중위연령 45.2세에서 2050년 56.2세로 고령화 심화 예상
-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 약 49세, 은퇴 희망 연령 약 73세의 상황은 신중년 일자리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높임(경제활동인구조사, 2023)



■ 신중년의 사회경제적 특성

- 신중년은 이전 세대에 비해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
- 신중년의 고학력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단순한 일거리 중심이 아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통해 다양한 활동 참여 욕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
-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신중년의 생애전환기, 사회심리적 특성

-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 자존감을 확인해오던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게 되었을 때 쓸모 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면서 정서적 좌절을 겪음(김은석 외, 2019)
- 따라서 이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이어갈 수 있고, 쓸모 있는 존재로서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됨.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자리사업의 운영 방식이 수립되는 것만으로도 신중년의 퇴직 후 삶에 만족감을 줄 수 있음

■ 광주광역시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 광주광역시의 경우 빛고을 50+센터를 중심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수행. 광주광역시에 거주 하면서 만 50~70세 미만의 3년 이상 경력자 채용을 통해 일자리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자 함
- 50+ 일자리사업
 - 참여 대상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과는 다르게 만 45~64세의 미취업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함

-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사업

- 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세부사업과 경력 및 전문성 활용을 지향하고 있는 특성 때문에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사업을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다룸
- 광주광역시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2,083명이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광주복지통계 연감, 2023). 그러나 전반적인 노인 일자리사업은 단순 업무 위주의 활동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3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 설문조사 결과

■ 조사 목적

-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의 의미와 목적에 부합하는 일자리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광주광역시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 참여 실태 및 욕구를 파악

■ 조사 개요

-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2023년 광주광역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50+ 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 45세 이상 참여자. 경력요구형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표본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관내 노인일자리 담당 기관별로 유의할당을 하여 광주광역시 내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두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조사 영역 및 내용

- 설문문의 내용은 응답자의 인구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인적사항, 경제적 특성, 일자리 참여현황, 일에 대한 의미와 현재의 삶 등 크게 4개 영역으로 구성

■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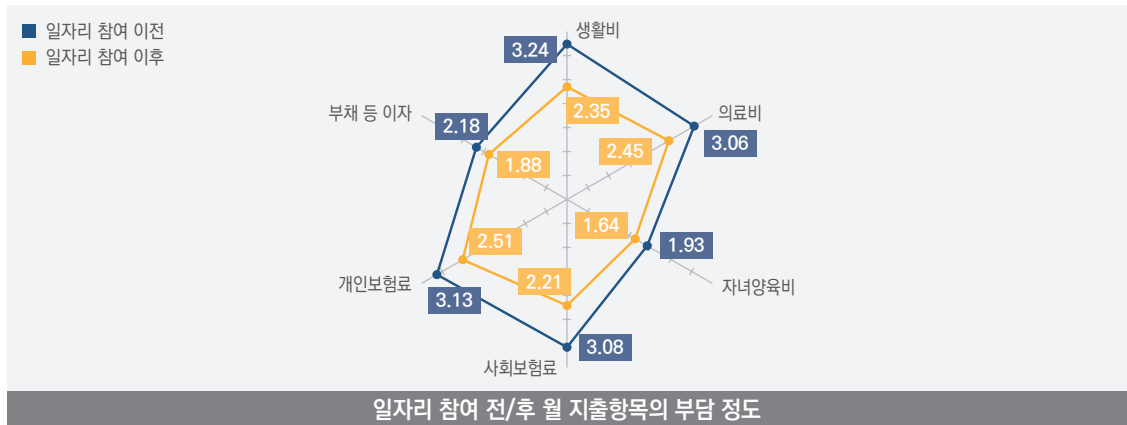
- 조사대상자는 총 306명이며, 성별 분포는 남성 52.3%, 여성 47.7%로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음. 전체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5.4세이며, 70세 미만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62.9세, 70세 이상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73.3세
- 70세 미만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 중졸 이하가 4.3%로 매우 낮았고, 대학교 재학 이상은 70.5%로 대체로 학력 수준이 높았음. 70세 미만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경우 모아놓은 자산(18.4%)이나 다른 동거가족의 소득(21.7%), 자영업 등 사업 소득(8.6)의 비율이 70세 이상에 비해 높았음

■ 가족 특성

- 70세 미만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 10대와 20대, 30대 자녀의 비율이 각각 3.3%, 34.4%, 49.5%로 90% 가까이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30.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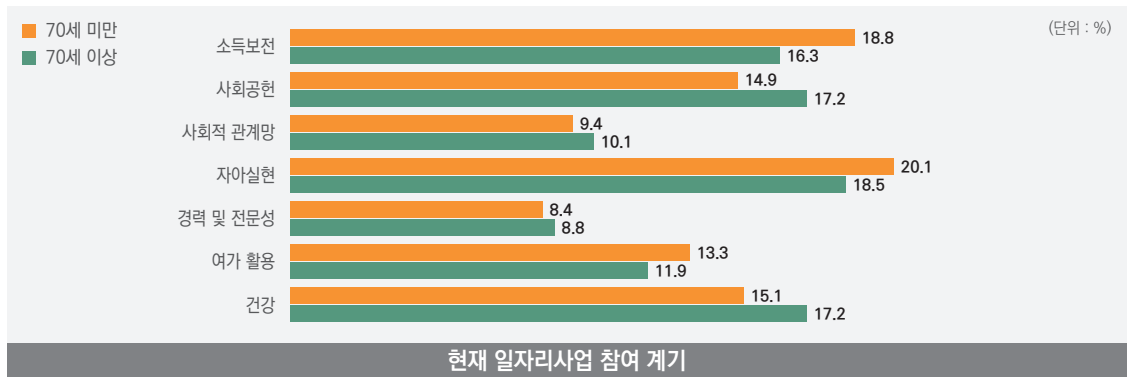
■ 경제적 특성

- 사업별로 일자리 참여 이전과 이후 월 지출항목의 부담 정도를 살펴본 결과 70세 미만 일자리사업 참여자와 70세 이상 참여자 모두 모든 항목에서 지출 부담이 유의미하게 감소



■ 일자리 특성

- 은퇴 전 주된 일자리는 공무원이 132명(46.5%)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원(74명, 26.1%), 자영업(43명, 15.1%), 전업주부(35명, 12.3%)순으로 나타남
- 현재 일자리 사업 참여 계기의 항목별 순위는 70세 미만 집단의 경우 자아실현(20.1%), 소득보전(18.8%), 건강(15.1%), 사회공헌(14.9%)의 순이었음



4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 심층면접 결과

■ 조사 개요

- 심층면접은 광주광역시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개념화하고, 추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 신중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외에도 각 구별 시니어클럽의 노인 일자리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자도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함

■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신규와 재지원 모두 있었으며, 일자리사업 참여 경로는 주로 지인 소개, 관공서 오프라인 홍보, 인터넷 및 SNS 등의 온라인 홍보방식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 사업 참여동기

- 이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기존의 직장에 비해 무리가 되지 않는 일을 찾아 건강을 동시에 고려하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으며, 한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 생애 주된 직장과의 비교하여 보다 흥미와 관심이 있는 일을 찾고 싶어서, 은퇴 이후 무기력함을 벗어나고 싶어서, 사회적 참여를 하고자 하나 자원봉사는 부담이 되어서, 경제적인 여유를 확보하고 싶어서 등의 이유를 말함

■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생애 주된 일자리와의 비교

-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생애 주된 일자리와 경력의 유사성이 있는 예도 있었으나, 대상자의 나이가 많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력 유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공헌형 일자의 특징

-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 비하여 책임감과 부담이 적은 편이며, 시간 운영에 융통성이 있음. 그러나 무급 자원봉사에 비하여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 사전 준비시간이 들어감. 또한 단속활동비 및 교육비 이상의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며 일을 한다고 함

■ 사회공헌형 일자의 체계

-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참여자 선발 과정에서 직무능력, 경력 및 역량을 평가하는 인터뷰가 진행됨. 이 과정을 거쳐 선발되면 업무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인 사전교육을 수행함. 근무시간의 경우, 대체로 일주일에 3일 내외, 하루에 3~5시간 정도의 반일제 근무를 시행함. 이에 대한 급여로는 근무시간에 따라 다소의 차등이 있지만, 최저시급 정도에 해당하는 70만원 내외의 금액을 수령함

■ 사회공헌형 일자의 효과

- 첫째,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가꾸며 자기관리를 하게 됨. 그 결과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음
- 둘째, 신중년들은 소속감을 생애 주된 직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은퇴 및 퇴직 이후 소속감이 사라졌다고 하였는데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다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함
- 셋째,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사회공헌형 일자리에 참여 하면서 가족관계가 개선됨

■ 사업 참여 소감

-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여러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말함. 적은 급여라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나이가 들어도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언급함

■ 이후 사업참여 의도

-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일자리사업에 매우 만족하였기 때문에 건강과 시간의 여유가 허락한다면 계속 일을 수행하고 싶어함. 신중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건강을 상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시간 측면에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함.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최저 시급 이상의 금액은 필요하나, 일자리사업에서 수령하는 급여는 생활비보다는 여가 등의 기타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하거나, 더 높은 노동 강도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음

■ 사회공헌형 일자리 운영개선 방향

- 첫째, 신중년들은 일자리사업을 통해 마련한 경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참여가 가능하기를 희망함
- 둘째, 사업기간의 개선을 통해 한번 사업 참여시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일할 수 있기를 바램. 현재의 운영방식은 연초에 선발하여 업무 배치를 마친 후 5~10개월 내외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5~10개월 내외의 일자리가 끝난 이후에는 다음 사업 공고가 게시 될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다음에 선발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큼



5 광주광역시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 활성화 방안

1) 정책 대상 및 일자리 재정의

■ 정책 대상 : 만 50~70세

- 첫째, 기존 신중년 일자리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함. 신중년 일자리사업 중 대표적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만 50~70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50+ 일자리사업도 대표적인 신중년 일자리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 대상 변경이 용이함.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중앙부처의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정책 대상 변경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음. 따라서 국가단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광주광역시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의 대상은 만 50~70세로 제시할 수 있음
- 둘째, 변화하는 연령별 특성을 고려해야 함. 50+ 일자리사업에서 64세까지 제한을 두고 있는 기준은 신중년의 건강상태나 일자리참여 의지에 비해 너무나 짧게 규정되어 있음
- 셋째, 앞으로 이어질 노후소득보장 관련 제도적 개혁을 통해 변경될 정책 대상 범위를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그에 따른 신중년 일자리사업의 목적과 정책 대상도 연계해야 함.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노후 연금체제로 편입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은퇴 후 공백을 다양한 일자리사업이 채울 수 있어야 하며,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도 은퇴자들의 사회참여를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제도 개혁을 고려하는 정책 대상 선정이 필요함

■ 광주광역시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 재정의 및 통합 구축

- 광주광역시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을 다섯 가지의 방향으로 제시함. 전문성 및 경력 활용, 단절되지 않는 사회참여, 사회공헌을 통한 적극적 복지, 은퇴자의 생애재설계, 노후소득 공백 해소임. 그리고 주의해야 할 방향으로 일자리 침범 등 다른 영역과의 중복, 이중노동시장에서 이어지는 일자리사업을 통한 복지 이중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 재정의 및 통합구축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현재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형과 공익형의 특성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함. 전문성과 경력 활용성을 대폭 높은 일자리를 사회서비스형으로 배치하고, 단순 일거리에 가까운 세부사업을 공익형으로 옮기는 것을 제안함
- 둘째, 전문성 및 경력 활용도를 높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과 함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50+ 일자리 사업을 광주광역시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으로 정의함.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정부 부처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를 변경하기 어려움. 그러나 이 두 사업을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분절화 되어 있는 일자리사업의 현황 파악 및 전반적 관리가 가능 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셋째, 시장성이 떨어지고 사회공헌적 성격이 강한 영역, 그러면서도 전문성과 경력 활용이 필요한 영역을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의 대상으로 정의하여 기존 봉사활동과의 유사성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및 다른 일자리 영역과의 구분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음

2) 광주광역시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 활성화 체계 구축

■ 신중년 일자리사업 거버넌스 구축

- 광주광역시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절화 되어 있는 기관 및 시설을 조정하는 운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첫째, 수행기관별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모아서 교육 전담 기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음
- 둘째, 신중년 거버넌스를 통해 중앙정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도 지역성을 고려하는 정책 설계를 담당할 수 있음
- 셋째, 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상담, 사후관리, 일·활동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일자리사업 운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
- 넷째, 법적 체계 강화라는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

■ 생애주기별 개인맞춤형 체계 수립

- 연령, 소득, 경력 및 전문성에 따라 생애주기별 개인맞춤이 가능하도록 일자리사업 체계 수립



3) 광주광역시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

- 사회공헌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 참여자 - 수행기관 - 파견기관 상호존중문화 확산
- 광주광역시 권역별 거점 기관 설립으로 접근성 향상
- 조례 제정을 통한 사업운영의 안정성 달성
-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시 경력·전문성 기준 강화
- 사업 공백 기간 사회참여 유지 방안 발굴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과 공익형 일자리사업 구분 명확화
- 보상 체계 강화
- 디지털 직무 교육 강화
- 광주광역시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공헌 가치 실현을 위한 일자리 발굴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23.7.27.). 보도자료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2027년 노인인구의 10%로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통계청(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광주광역시(2022). 광주 사회지표.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2023). 광주복지통계연감.

김은석·심우정·이로미·이지연·강옥희·송스란·유애영(2019).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6차년도). 한국고용정보원.